

신중년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가기> 뜻밖의 순간, 뜻밖의 우연으로

신중년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가기>
뜻밖의 순간, 뜻밖의 우연으로

산중년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가기>
뜻밖의 순간, 뜻밖의 우연으로

발행처 / 기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R&D팀

집필자

유현아 작가

전체 목차

프롤로그	1
I. 신중년은 누구인가?	5
1. 신중년 세대	5
2. 생애전환의 의미	8
3. 게으를 수 있는 권리	12
4. 신중년과 글쓰기의 개연성	15
II. 인생 후반전, 나의 두 번째 삶	18
1. 책, 만나다	18
2. 책, 떠나다	24
3. 책, 살다	32
4. 책, 스미다	39
III. 신중년 세대의 문학	44
1. 나만의 삶	44
2. 나의 삶에 집중하기	47
3. 옆집 사람	51
4. 나를 위한 예술	54

IV. 에필로그	58
----------	----

부록

참고 도서 목록	62
북스테이 리스트	68
문학관 리스트	69

프로로그

나의 삶을 기억하는 일, 문학이 있어야 할 그 자리

2018년 가을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에 참여한 두 팀과 함께했다. 한 팀은 도시의 삶에서 농촌의 삶을 선택한 함양에 사는 <물레방아문사철5060> 팀이었고, 한 팀은 촛불집회에서 만난 민주주의시민모임 <고래등> 팀이었다. 두 팀 모두 이 프로젝트 이전에 문학과는 조금 먼 거리에 있었다. 그래서 더욱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인지도 모른다. ‘문학’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문학’이었다.

50 이후라는 숫자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의 일상은 바쁘고 힘겹다.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생각은 하라지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기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코디네이터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란 그저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생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참관하는 일이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조금 비껴 있는 기획을 하고 의견을 모으고 실행을 하는 모든 일에 회원 모두의 결정이 필요했다. 마음이 맞는 팀원이었는데도 기획을 하는 과정이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빠져덕거렸고 팀원이 변경되기도 했다. 그들의 삶에 거절과 협의를 거치는 상황은 낯설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끝까지 그들이 설계하고 결정하고 진행의 결과를 그들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그들에게 4주간 문학과 함께한다는 것은 들뜬 소풍이었다. 어떤 책을 선정할 것인가, 어떤 작가를 만나야 할 것인가,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책과 함께할 것인가, 어느 문학관을 방문할 것인가 그리고 글쓰기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것은 버거운 과정이기

도 하였지만 자신만의 상상력을 건드리는 과정이기도 했다.

함양으로 귀촌한 모임인 <물레방아골문사철5060>은 문학이라는 낯선 단어에 당황하고 조금은 서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호기심은 어느 팀보다 탁월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흥미롭게 바라보고 끊임없이 설렘했다. 그들은 충분히 그들의 삶에 만족했으며 문학을 알지 못해도 충분히 행복했다. 함양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였으니까. 하지만 소설가를 만나고 시인의 삶을 들으면서 문학은 따로 떨어져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가까운 곁을 내주는 과정을 경험하는 일이었다.

거주지가 일산, 전주, 봉담 등인 전국구 모임인 <고래등>은 민주시민모임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고자 많은 애를 쓴 팀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팀원들의 협의를 이끌어낸 팀으로 회의시간이 긴 팀이었다. 프로그램 기획을 스스로 할 줄 아는 팀이었다. 특히, ‘송정리그림책마을’을 방문해 고향을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펴내고 자신의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

코디네이터로 함께하면서 두 팀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학’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처음 글을 써보았다는 분은 처음 아버지에게 대해 썼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신에 대해 뿌듯해했다. 팀원들이 쓴 글을 읽는 내내 감동이였다. 문학이란 이야기하지 않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닐까. 어느 유명 작가의 문장이 아닌 나만의 목소리로 내 삶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이 문학이 아닐까. 실령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말이다.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돈도 없고 뻘도 없고 배움도 적은 사람들이
수룩 책임기 하고 글쓰기 해야 합니다. 책임기와 글쓰기는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는 자존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눈물은 날 게 뭐람.*

위 글은 공선옥 소설가의 산문 중 일부다. 낡은 수첩을 뒤적이다 손글씨로

쓴 문장을 다시 읽어봤다. 눈물, 이라는 단어에 한참 눈길을 주었다. 수사 가득한 단어로 이루어진 거창한 문장이 아니라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딱 내 마음을 건드리는 그 문장 때문이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모든 과정을 함께하면서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는 두 팀에게도 나에게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50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경험이었다.

우리에게 ‘모두 없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문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무것도 없음으로 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닐까.

I. 신중년은 누구인가?

1. 신중년 세대 || 백수의 참미

백수도 참 할 일이 많다

도리깨질하는 앞에 서서 고개만 까딱거려도
수월하다는 앞집 임영자 씨 말 듣고
저쪽에서 하나 넘기고 이쪽에서 하나 제치고
돌이 하면 힘든지도 모르고 잘 넘어간다는
아랫집 맹대열 씨 말 듣고
쌀방아 보리방아 매기미질도
돌이서 셋이서 하면 재미나대서
콩 튀듯 팔 튀듯 바쁜 양승분 씨 밭에 가서
가만히 서 있다
콩 터는 옆에 앉아 껍데기 골라냈다
사방팔방 날아다니는 콩알을 줍기도 했다
심지도 않은 땅콩 한 소쿠리 얻었다
백수도 참 할 일이 많다

— 김해자, 『해자네 점집』, 전문, 도서출판 걷는사람

신중년(50세~64세)이란 50+ 세대로, 주된 일자리에서 50세 전후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를 준비 중인 과도기적인 세대를 말한다. 한국 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백세 시대에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생애전환 세대로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퇴임을 했거나 하는 세대이다. 50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이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노인기로 인지하기보다는 장년층이나 중년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 기관에서도 신중년 또는 장년이라고 정의하고 불리고 있다.

신중년을 리본(re-born) 세대라고도 한다. ‘나’를 찾아 다시 태어나는 세대라는 의미로 쓰인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낀 세대가 아닌 ‘나의 삶’을 찾겠다는 껌 세대으로써 생애전환을 하려는 세대이다.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는 가난과 근대화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는 데 중심에 있었다. 또한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자부심이 크고 IMF와 금융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 봉양과 자식 교육 그리고 결혼까지 역할을 다했으나 은퇴 이후의 노후 준비는 하지 못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경험과 살아온 시간을 공유한 50+ 세대는 그들만의 코오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50+ 세대 즉 신중년 세대는 다양한 대중문화의 유입과 진화, 경제·사회적 성장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로 생애주기에서의 신중년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직면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신중년은 자신보다는 국가와 사회, 가족과 직장을 위해 일해 온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고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구조조정으로 또는 명예퇴직을 강요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다. 노후 준비도 못한 채 퇴출당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신중년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다. 시장에서 임금노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살아야 하는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불안과 공포이다. 끼인 세대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압감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준비가 충분치 않아 은퇴 후에도 임금노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50+ 세대는 갱년기 증상과 체력 저하 등으로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무력감을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무언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 제한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들의 은퇴는 잠깐의 여유를 주기도 할 테지만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을 동반한다. 신체적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이후의 삶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 세대는 그동안 끊임없이 달려온 질주에서 잠시 멈추고 여유를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시장에서 밀려났을 때 백수가 된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다. 백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 남아도는 잉여 노동력, 실패자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백수는 아무 쓸모없는 ‘것’인 것이다. 그러나 달리 바라보면 백수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자유이다. 뒤집어보면 백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백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백수다. 창조적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백수를 생산적이고 창조적 활동을 하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백수도 참 할 일이 많”은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통해 경제 활동까지 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시장 안에서 임금노동에 목매는 일을 벗어나도 살아간다. 과감히 시장 밖으로 뛰쳐나와 나의 처지와 능력에 맞는 경제 활동과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키우는 창조적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50+ 세대가 지금부터 ‘나의 가치’를 찾고 주체적으로 인생 후반전을 계획할 수 있는 기로에 놓인 셈이다. 발상과 삶의 양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들이 생애전환 세대로 지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생애전환의 의미 || 전환을 가로막는 적들

끔찍한 일요일

휴대폰이 방전됐다
토요일 과다한 통화와 포털 뉴스 접속으로
배터리가 다 닳았다
구입한 지 3년이 넘는 구형이라
접속 부분이 망가진 탓인지
충전기로 삽입했는데도 제대로 충전이 안 되었다
부랴부랴 연구소 앞 편의점에 가서
9,500원짜리 새 충전기를 구입해
다시 꽂아도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
어쩌나, 중요한 연락과 약속이 많은 일요일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는 하나도 없다
일정과 상대방과의 연락이 모두 두절이다
급히 승용차를 몰고 동네 휴대폰 가게와 대구 시내
AS점 몇 군데를 돌아보았다
다 문이 닫혔거나 공휴일 휴업이다
오늘의 모든 역사는 여기서 끝이다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던

문명의 노예 됨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20세기 사상이 이반 일리치가 말한
 문명은 장애인의 도구라는 잠언이 생각난다
 어쩔 수 없다
 지상에서 약속은 완전 암전이지만
 문화분권 지하 연구소에서는
 바깥세상 일을 다 잊고
 독서로 상상의 세계를 마음껏 다녀보자
 생각해 보니 내가 휴대폰을 들고 다닌 게 아니라
 휴대폰의 두 손에 내가 먹살 잡혀 끌려 다닌 것이었다
 지독한 노예가 된 하루였다
 끔찍한 일요일 하루였다

— 김용락, 『하염없이 낮은 지붕』, 전문

전환(transition)이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표준어국어대사전)을 의미한다. 영어단어인 transition은 라틴어 트란스지어레(transire)에서 기원되고 있으며, 명사형인 트란지티오(transitio)는 이행, 전환, 변환, 과도기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 전환이란 현재 시점에서 단계마다 변화되고 있는 연속적인 이행과정이며 완결이 아니라 이행과정에서 겪는 내적·외적 경험의 변화로 연속적인 개념인 것이다(신의수).

생애전환은 생애전환 세대에게 인생 후반전을 이전과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를 묻는다. 은퇴라는 말 대신에 ‘삶의 전환’을 추구하는 삶을 살자는 뜻이다. 베이비부머인 신중년 세대는 경제적·정신적으로 벼랑 끝에서 있다. 벼랑 아래로 떨어질 것인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는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삶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벗어나서 현재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신중년 세대는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 삶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시장 밖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고자 한다면 자신을 성찰하는功夫가 필요하다. 어느 날 휴대폰이 방전되자 연락은 두절되고 일정은 정지되어 “오늘의 모든 역사는 여기서 끝”나버린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법한 일상의 한 단면이다. 자본주의의 속도를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을 때 “문명의 노예”가 되는 순간이다. “생각해 보니 내가 휴대폰을 들고 다닌 게 아니라” “휴대폰의 두 손에 내가 먹살 잡혀 끌려 다닌 것이었다” “자독한 노예가 된 하루였다”고 읊조린다. 노동의 노예, 물질의 노예, 시스템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가치를 존중하는 삶은 한 줌의 용기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나의 가치를 찾는 시작점인 것이다.

50+ 세대는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로서 먹고사는 것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진정한 전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부모 봉양과 자식의 교육·결혼 등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이들 세대에게 경제적인 공포감이 강박적으로 짓누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안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안정된 직장, 안정된 생활, 안정된 미래는 없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순간 ‘나’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거기에서 오는 불안이 ‘나’를 더욱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먹고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노후 걱정으로 삶을 되돌아볼 겨를이 없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전전하게 된다. ‘나’는 사라지고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노예만 남는 것이다.

집과 사는 동네, 재산, 사회적 지위 등으로 판단하고, 학벌과 인맥 등으로 선별해서 사용하고 다 쓰고 나면 버리는 사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사회에서 보이는 ‘나’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나’를 회복하여 관계를 정하여야 한다. 생애전환의 진정한 전환은 삶의 양식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시스템으로부터 최대한 떨어져서 나만의 사용가치를 찾으며, 내 삶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살 것인지가 중요하다. 모든 것을 잘하는 것보다 Only One으로서 내 운명의 주인으로서 지금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자본주의로부터 자립할 때이다.

3. 게으를 수 있는 권리 || 스스로 개입하기

해질 무렵 집 앞에 앉아

서른이 넘어서야
떠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홀로 떠나는 법을
마음의 빛이건 물질의 빛이건
떨레야 떨 수 없는 내 몸뚱이 비겟덩어리처럼
살수록 느는 건 빛이라
이사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늘어나는 짐들
박스 하나로 시작했던 타지에서의 삶이
트럭을 한 대 이상 불러야 할 정도로 나이를 먹어
누구나가 땅에 두 발 붙이고 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내가 딛고 있는 두 발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이어진 선 안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는
점차 그 테두리 안으로 발목 잡혀 뿌리를 내리고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희망도 절망도 가슴에 묻어버리고 살아간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가볍게 일어나서 뽀지게 놀다가 저녁엔 삭신이 육신거려도 좋다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 하나만 있으면
어찌 만족스럽지 않을까
나만 한 가방 하나와 내가 앉아 있으니
짐인지 가방인지 사람인지 경계가 없어져

동그란 덩어리 두 개 나란히 있는데

무엇을 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

— 김사이, 『반성하다 그만둔 날』, 전문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과 게으르게 사는 것과는 대립하지 않는다. 게으르게 사는 이들을 백수라고 부르며 하릴없이 누군가의 등골을 빼먹는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청년 세대나 신중년 세대나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싶다. 신중년 세대는 은퇴 이후 사회에서 내 위치가 없어졌다는 상실감과 무력감, 관계망의 축소에 따른 소외감 때로는 익숙한 것에서의 멀어짐에 위축되고 노화되어간다. 모든 것이 변해간다. 몸도 마음도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 수명이 길어진 탓에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신중년을 위한 자리는 바늘구멍만 하다. “노동 중독은 아편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과 하등 다를 바 없”(폴 라파르그)는 시대에 우리는 눈과 귀, 손과 발 그리고 마음까지 쉴 여유가 없다. 여유가 생기면 불안하다.

생애전환이 필요한 시기일수록 게으를 수 있어야 한다. 게으르다는 것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을 의미한다.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으나 나는 쓸모없”이 “살아서 무참히 시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누구의 무엇의 부채가 아니라 나”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다. 나로 살기 위한 상상력의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다. 오늘 삶의 전환점에서 십표를 찍고 시스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새로운 삶을 살며 여유롭게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새로운 삶이란 자본주의로 시스템으로부터 자립하는 것이다. 돈과 명성과 이익, 인정 욕구 등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인생 중반에 들어서면 현금보다 중요한 것은 현물이다. 이때의 현물은 관계의 풍성함이다. 인맥, 학맥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신중년의 전환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현금보다 현물에 대한 관계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그 관계망에서 임금노동이 아닌 경제 활동도 찾을 수 있을 있다. 돈의 기준으로는 관계는 늘 서열화될

수밖에 없지만 공감과 소통으로 맺은 수평적인 관계는 서로의 삶을 치유하고
어루만지며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관계는 화폐에 선행”(고미숙)하기 때문이다.

게으르게 산다는 것이 실제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을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느냐에 따라 오는 행복의 온도가 달라질 것이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생애전환이 필요한 지금 바로 용기를 내보자는 뜻이다.
속도의 의미가 아니라 방향 전환인 것이다. 삶 공부를 해야 한다. 노동의 노예로써
불안과 비참함을 견디며 ‘나’가 없는 삶으로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가.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다면 나에게 걸맞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것들이 보일 것이다. 수평적 관계는 단단해질 것이고 인생 후반전인 삶은
충만해질 것이다.

“스코트가 여든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을 ‘노인’이라 부르는 것을 듣고 나는
화가 났다. 아흔이 넘어서는 받아들이긴 했지만, 스코트는 90대 중반까지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 무렵 그이는 이 힘이 조금 줄어드는
기색을 보였을 뿐이었다. 뛰어난 건강을 지닌 그이도 노년기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이의 타고난 체질, 환경, 식사법, 습관, 감정,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었다.” 이 글은 헬렌 니어링이
문명을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며 자연주의를 실천했던 철학이 담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4. 신중년과 글쓰기의 개연성 || 지금 나에게 오는 것들

꼬트머리

꼬트머리라는 말 참 좋지요

한 생을 접고
또 다른 시작에 고리를 거는
꼬트머리에는 웬지 모를
한숨과 안도와 긴장의
굵은 땀방울 묻어 있지요

아시잖아요
선달 끝자락에 새해는 움트고
은퇴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은 열린다는 거
그런데 그런데요

매 순간이 시작이거나
매 순간이 끝인
둥근 꼬트머리는 어떨는지요

- 고증식, 『얼떨결에』, 전문, 도서출판 걷는사람

‘끄트머리’라는 말 참 좋다. “한 생을 접고” “또 다른 시작에 고리를 거는” 끄트머리에 “한숨과 안도와 긴장”이 묻어나는 신중년 세대. “은퇴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그러나 시작과 끝을 선으로 긋지 않고 매 순간이 시작과 끝일 수 있는 “둥근 끄트머리”는 어떠냐고 묻는다. 사실 개개인의 삶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일방통행일 수는 없다.

“삶은 관계다. 살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삶이”(고미숙)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가만히 멈추어 서서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며, 무슨 사건에 참여할 때는 어느 정도 긴장감도 느껴야 한다. 우리는 혼자 있을 시간이, 타인과 깊숙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자신의 일을 몸소 창조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외부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을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모든 근육과 감각을 사용할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동료들과 함께 정말 건전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기획할 시간이 필요하다”(폴 라파르그).

새로운 변화를 대할 때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이나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같이한다. 불안과 불행이 깊어질수록 고뇌하기보다 회피한다. 반평생 넘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온 세대에게 이전의 삶의 방식을 깨야 한다고 하면 바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공부가 필요하다.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물으며 탐구하는 과정 없이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어렵다. 자신의 삶을 성찰할 기회를 통해 보다 값진 인생을 이룰 수 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읽고 쓰기의 문학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먼저 책읽기는 가까운 도서관에 가면 된다. 글쓰기는 펜과 종이만 있으면 무엇이든 창조해낼 수 있다. 50 평생 살면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책읽기는 다른 이들의 삶을 만나고 시간을 읽고 시대를 읽고 자연을 읽는다. 읽은 책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글쓰기로 내 삶을 들려주는 것도 좋다. 문학이 삶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읽고 쓰기를 계속하다 보면 이전의 삶으로부터 관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세상이 스승이라는 말이 있듯, 세상 모든 것이 인생의 고전이기에 때문이다.

책읽기와 글쓰기가 일상이 된다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에 눈이 열리고, 들리지 않았던 속삭임이 들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들이 느껴질 몸의 감각이 깨어날 것이다. 내 이름을 찾을 수 있고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글쓰기가 얼마 전에는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 글을 쓰는 장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쓰려고만 한다면 누구든 무엇이든 글을 쓸 수 있는 시대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글은 책읽기와 병행이 된다. 읽고 쓰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읽기와 쓰기를 꾸준히 깊게 행한다면 뜻밖의 순간, 뜻밖의 우연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관계에 대한 소외에서 어느새 단단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중년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문학인 것이다.

Ⅱ. 인생 후반전, 나의 두 번째 삶

1. 첫 || 책, 만나다

인연 1

조미영

낙엽 쓸면서 알았다
스치는 것도 엉겨 붙어 있는 것도
갖가지 색의 조화도
인연이었다는 것을

원하던 원치 않던
광풍과 흙먼지로 휘 물려 있는
낙엽들도

인연은
때가 되면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낼 줄 알면서
다시 올 봄을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와
책 마을 해리에서

그 하룻밤 인연도

※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수많은 시간과 사물들 그리고 불시에 다가오는 어떤 일들을 만나거나 스치거나 한다. “때가 되면 버릴 줄 알아야” 뜻밖의 우연이 “하룻밤 인연”이 되어 인생 후반전, 두 번째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

전귀정

문학과 한 달을 살아보자며 전화를 받았다. 당황스러웠다. 애완동물을 좋아하지만 애완동물을 한 달 동안 키워보자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좋아하는 것과 키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책임감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당연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 매주 한 번씩만 나오면 된다는 말에 님이었다. 대충질을 잘하는 나는 이번에도 내용도 모르면서 사람이 좋아 장에 따라나서는 허당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작동했다. 과연 ‘문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웬지 ‘문학으로 한 달 살기’는 많은 책을 읽어야만 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하고, 지식을 쌓고 높은 이상만큼 우아하게 살아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문학을 매개로 한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문학을 만나는 것이라 한다. 말은 이해되는 듯싶는데 아직 경험하지 못한 문학을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 어디에서 찾아보라는 것인가? 궁금하던 차에 책이 여러 권 배달되었다. 그러면 그렇자... 이제부터 나를 옥죄이는구나 싶었다.

첫 모임은 작가와 만남의 시간이었다. 도서 ‘세 여자’를 읽는 동안 모르는 기초 지식을 찾아보고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공부하듯 읽었다. 또 궁금한

것들은 메모를 하면서 보았다. 모임에서 안내해준 작가의 강의 동영상도 보았다. 역사소설책이지만 소설책을 이렇게 공부하듯 읽어본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깊이를 더할수록 궁금증도 많아지게 된다. 영상이 떠오른다. 흠먼지가 흩날리는 만주벌판 가운데 낡고 너털거리는 독립군 복장을 한 무리들이 걷고 있다. 형색은 초라하지만 당당한 그 발걸음은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긴박하고 초조 불안한 스릴감은 약하지만 오히려 콘티 영상으로 펼쳐져 나에게 다가왔다. 영화로 제작된다면 현장감은 더욱 실감이 날 것 같았다. 우리 팀원 중에도 ‘세 여자’가 있다. 세 여자 모두 썬 여자이다. 이분들은 이미 자기 삶을 주체적이며 문학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년이다. 도서 세 여자 덕분에 ‘썬 여자’ 이분들을 더욱 좋아하게 됐다.

문학은 만남이다

르포문학의 대표적 도서 ‘카타루냐 찬가’를 읽으며 저자 ‘조지 오웰’을 만난다. 노동자는 목숨을 걸고 혁명 투쟁에 나서지만 정치인은 적당한 협상으로 혁명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라 생각 들었다. 전쟁은 참으로 어리석은 정치 놀음이지만, 스페인 민중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은 조지 오웰이 느껴진다. 젊고 푸릇하고 앳된 20대 청년이 긴 장총을 어깨에 메고선 미소 짓고 있다. 내가 만난 멋진 사람이다. 더불어 우리 민중이 든 촛불혁명이 흐지부지 사그라들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본다.

그림책을 내신 부여 송정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다. 이분들은 사골에서 농사지으며 겪어온 삶의 애환과 흔적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대로 구술한 ‘그림책’이 태어났다. 나뭇짐을 지고 서낭당고개를 넘어가면서 바라본 큰아버지에 대한 회상은 가슴에 몽클하게 들어온다. 투박한 토박이말은 바로 노래가 되었고 ‘시’가 되어 이뻤다. 이야기들은 두레박으로 길러진 시원한 샘물 같았다. 이렇듯 모든 발자취는 감동의 삶이었구나 싶었다. 지금의 나의 삶도 감사와 감동의 삶이 아닐까 싶다. 송정마을에서는 감동을 만났다.

시인은 우리를 왜 심쿵하게 하는가?

시인의 글을 통해 본능적으로 평화를 갈망하게 되고,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평안함을 주는 한편,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갈아엎고자 하는 분노와 혁명적 투쟁을 용솟음치게 한다. 시인의 삶에 대해 설명 듣고 난 후 바라본 ‘시’는 더욱 깨끗한 여운을 남기며 마음과 영혼을 맑게 한다. “왜냐고 묻지 않는 삶”에 대해 뜨끔한 문학관 탐방이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더 높은 단계는 ‘글’을 남기는 것이라 생각 든다. 신동엽문학관에서 뮤지컬 ‘금강’을 보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마치 성북동에 있는 만해 한용운 생가에서 뮤지컬 공연을 보았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제 인생 후반전을 살고 있다. 지나 보건대,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올라서 보았고, 넘어져 아파 보았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즈음에는 중년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물러서 비켜서주는 용기가 필요한 때인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공허감에 빠지게 된다. 이런 우리에게 위로가, 치유가, 감동이 필요한 때인데 ‘문학과 한 달 살기’가 그 역할을 해주었다.

‘문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이렇게 답했다.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있어서 문학은 마중물 역할을 한다. 만나고 좋아하고 심쿵하게 만드는 것들, 이제 “문학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 우리는 모두 한 번씩 젊음을 거쳐 중년에 이르고 노년으로 접어든다. 내가 느낄 새가 없이 중년에 들어서고야 내가 중년인 것을 깨닫는다. 그때 밀려드는 허무와 공허는 그간의 삶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무력감을 극복하는 데 문학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샘물 같은 문학은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마중물’ 역할로서 나를 되찾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내가 먼저 희망이 되어야지

양미연

문학과 한 달 살아보기 제1탄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 30년 넘게 혼신의 사랑을 펼치고 있는 한 봉사자이자, 우리들의 평범한 어머니인 안여일 작가님을 모셨다.

유명한 명 강의로 관중을 휘어잡는 달변가는 아니었지만, 자그마한 채구에서 진심으로 물어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어느새 감동되어 때로는 훌쩍이며, 때로는 잔잔한 웃음을 지으며 강의에 빠져들었다.

특히 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들의 임종을 지키며, 서로를 화해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쁘게 꽃단장시켜서 끝까지 잡으신 손 놓지 않으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분명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보시기 힘들어한 봉사자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 자신도 병마를 이겨내고 이제 그 담으로 주신 선물을 봉사에 헌신하고, 나눔의 삶을 살고자 결심을 하셨던 것 같다.

평생 나눔의 삶을 살다 가신 어머니의 영향도 크셨다. 누구나 거쳐야 하는 인생길이며,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 공간에서 항상 먼저 손 내밀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적이라 처음 책을 펼칠 때는 차마 읽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았다.

한 분이 질문하였다.

“선생님, 저도 봉사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까운 분들에게 봉사하세요. 먼저 남편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도록 하세요.”

작가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도록 충고하며,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봉사하며, 남은 나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 그렇다. 한 번 죽음의 순간을 겪고 나면 세상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부와 명예 좋긴 하지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다 다른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하여 문득 깨달아지는 것처럼 순간순간을 고마워하며 나에게 더욱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하다.

2. 둘 || 책, 떠나다

복스테이

최강순

나는 파킨슨병으로 인해 허리가 기억자로 굽어 있다. 양손에 두 개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는다. 문학살이를 앞두고 나는 걱정이 앞섰다. 1박이 문제였다.

1박 2일로 복스테이를 가는 날이다. 갈까 말까를 놓고 아침까지도 결정을 못 했다. 스스로 소지품 하나도, 책 한 권도 들 수가 없었다. 출발 1시간 전에 가야겠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이번 기회에 보호자 없이 혼자서도 1박을 해내고 싶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관광버스에 탔다. 긴장감이 밀려오면서 몸이 굳어져 가고 있었다. 그때 팀장이 다가와 커피 한잔을 내밀었다. 사양하자 물을 권한다. 화장실 다니기 불편해서 참겠다고 말했다. 창밖 풍경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내리려고 하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했다. 어깨에 배낭을 메려고 하는데 뒤에서 팀원이 번쩍 들고 내려간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쓸데없는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었다. 내 몸 하나 내리는 것도 힘들었다.

폐교의 교실은 책으로 가득했다. 애들 소리는 안 들리고 책의 특이한 냄새만 났다. 책 속에서 우리들도 책을 만들었다. 밤이 되자 팀원 전부 한방에 모였다.

팀원들 이야기에 폭 빠져 멍하니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했다. 성생활에 대한 질문이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솔직한 이야기에 갑자기 웃음바다가 되었다. 밤이 깊도록 이야기는 이어졌다.

아침이 밝았다. 잠에 빠진 팀원들 사이에서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토스트를 만들고 과일을 준비하면서 왓치 기분이 좋았다.

나는 집에만 있다 보니 대화할 사람이 없어 말을 잊어버렸다. 이웃과 대화 없이 지내다 보니 말할 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1박을 하면서, 그리고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와 함께하면서 나는 말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무 조건 없이 마음 문을 열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다.

※ 문학살이에 참여하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용기를 냈다.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든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안으로 침잠한 나를 밖으로 끄집어냈다.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목소리를 내고 마음을 열게 만든 것이 문학을 통한 문학살이였다. 몸과 마음이 아플수록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신중년들에겐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인생뜨기

오드리

사슬뜨기 10코

긴뜨기 9코

빼뜨기 8코

아차 1코를 빼먹었네

드르륵 술술

첫 코부터 다시 시작한다

인생도

뜨개질처럼

다시 뜰 수 있다면 참 좋겠다

15년 전으로 돌아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숙제 안 했다고 야단치기보다

더 사랑해주고

술 마시고 늦은 남편에게

웃음 지어주고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께 친절하게 대해드렸을 텐데

오늘도 인생을 한 코 두 코 뜨면서

후회하지 않을 작품을 정성껏 뜬다

※ 인생도 뜨개질처럼 코가 잘못 끼인 뜨개질감은 실을 풀어 다시 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도 중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을 한 코 두 코’ 정성을 들여 ‘후회하지 않을 진솔한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비결

성경식

막상 독후감을 평소 아무 준비도 없이 작성을 하려니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내 머리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 같다.

책의 선택은 내가 앞으로 나이 들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최소한 이 사람은 ‘진실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중년의 삶과 앞으로 노년에 있어서,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나의 앞으로의 로드맵을 어떻게 머릿속에 그려나가야 될지 생각할 기회도 가졌다. 그래서 최근에 교보에서 구입한 일본 소노 아야코의 『행복하게 나이 드는 비결』을 선택했다.

이제 내 나이 60대 중반으로서 아무래도 노년으로 가고 있는데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나이를 먹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직하다.

저자 소노 아야코 씨는 일본 도쿄에서 출생을 했지만 우리나라를 잘 아는 소설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성 나자로 마을 나환자들을 위한 강연회와 자선모임을 주선하였고 약 20년간 이 사회에 소외되어온 나환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문학작품을 통하여 승화시켰으며, 작가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예리함으로 다수의 책을 출판하였다.

저자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들의 가식이 없어지고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진실한 삶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살아가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 나이이며, 중년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 화를 내면 그만이다. 이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운명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빨리 잊는 것도 중년의 슬기로우에서 나온 지혜이다. 어리석은 과정이 없이 스스로 현명함을 터득하지 못하는 것도 중년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은 참으로 중년 이후의 인생이 계속되는 일련의 선택 과정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느 한쪽을 두둔하게 된다면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에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좋고 싫음에 관계없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하게 되는데 있어서 현실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만은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반으로 줄어들지 않는 게 유일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섭렵하면서 저자가 담담하게 써내려가는 글을 음미하다 보면 우리 중년의 가슴속 깊게 공감대가 형성되며, 인생을 더 살아가려는데 있어서 욕심과 아집, 편견과 실패는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온 데 있어 얼마나 큰 자산이며, 그것들을 토대로 삼아 아름답게 간직하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큰 복덩어리로 우리들의 가슴속으로 들어온다.

중년의 인생은 순탄함, 성공뿐 아니라 좌절, 실패, 비참함은 인생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봄과 동시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인생의 완성 과정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래서 쓴맛, 단맛 모두를 음미하는 것이 곧 행복하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비결이다.

우리가 좀 더 젊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을 이어주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바로 그것이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성숙한 나이이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불안과 걱정, 체념이 아닌 신선하고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신선의 경지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저자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육체가 노화되고 쇠퇴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한다. 이 세상 누구나 자기의 육체에 만족을 못 하는 게 당연하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며, 자기 스스로 먹고 자기 스스로 배설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사색하며 산책할 수 있다는 즐거움 그것은 얼마나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중년의 나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또한 그것은 신의 축복이며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생각을 들게 한다.

이렇게 중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멸의 길”을 “영혼의 완성의 길”로 바꾸어 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중년에 추한 것 비참한 일에서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중년 이후의 인생이란 자기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젊음이 있을 때는 자기가 마음먹은 일이 되면 성취감과 희열을 맛볼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자신의 생각, 예측, 희망, 비전, 기대치 등과의 어긋남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실패를 툴툴 털어버리고 허탈함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중년에서야 할 수 있는 즐거움일까.

우리들이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 좌절하여 자살할 정도로 자신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일은 없다. 물론 일이 성공적으로 잘되어도 자신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며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년의 아름다움이다. 중년에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실패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관대함과 넉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년! 우리가 행복하고 멋있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여유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노력은 세상을 쿨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바라보는 관조의 눈이 필요하다.

언제나 인간의 생활에서 실수와 좌절, 실패 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넉넉한 자산으로 남는데 그것을 잘 받아드려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인격, 품격의 완성이 뒤늦게 찾아오게 되는 것은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묵묵하고 조용하게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인내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년! 나이 먹음, 관절염, 당뇨, 피로피함, 땡고집, 권위 의식, 아집 등 누구나 이렇게 연상되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생각들이다. 그러나

인간은 나이가 들어야만 세상사를 넉넉하게 관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즉 세상을 보는 눈이 겉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또는 비스듬히 말이다. 그 여유로움은 나이와 더불어 생겨나는 하나의 재능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한 재능은 아주 뒤늦게 개화를 하며, 꽤 지긋한 나이가 되었어도 계속 움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들이 젊었을 때에는 나의 희망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라는 아주 명쾌한 논리로 적용하는데 중년 이후에는 어떠한 인생도 좋지 않은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다는 아주 불투명한 인생의 중후한 묘미를 즐길 수가 있는 여유 바로 그것이다.

인생은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의 삶의 과정을 거쳐서 영혼과 교접할 수 있는 중년의 삶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중년에 건강이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건강유지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가 왕성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먼 곳으로 바라보는 안목과 비전이 생겨 좀 더 생각이 깊어지는 사람으로 만들며, 신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진다.

※ 좋은 책과 좋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나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부지불식간에 감동과 어떤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소박하지만 여유롭게 주체적인 삶을 살며 나이가 들어가는 삶들이 있다. 중년의 시간은 하나의 인생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현재서 있는 중년의 길이 이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것이다.

3. 셋 || 책, 살다

수다 떨며 가만가만 함께 걸어가는 길

햇살

꼭 일 년 전 가을이 시작될 때쯤 목적지가 있는 800km 길을 걷기 시작해 가을이 무르익을 즈음 그 길의 반에 서 있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딸의 배웅을 마치고 혼자 들어가면서 어딘지 알 수 없는 낯선 공간으로 쭉~ 뻘뻘 들어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을 기대와 설렘과 두려움에 가슴 떨면서 맞이하는 것이 얼마 만이었을까요?

지도책 한 권, 갈아입을 속옷과 여벌 옷 하나, 우비를 넣은 배낭과 내 두 발에 더해 네 발이 되어준 스틱만 있으면 나는 다만 걷기만 하면 먹을 것도 잠자리도 친구들도 천사도 준비되어 있는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에서 현실로 돌아와 아무리 자도 또 자고 싶은 긴 겨울잠에 빠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기 싫은 어린아이처럼 눈을 어렴풋이 뜨고도 누워 있었습니다.

“책모임 있는데 같이 해볼래요?”

수네의 초대는 겨울잠을 깨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책 들고 만나기. 만나서 조용히 자기 책 가만가만 눈으로 읽기. 그리고 나누기. 책에 빠져서 발에 가면서 시켜놓은 방청소도 안 하고 어둑해져도 ‘아이구 책벌레, 선비다 선바...’ 라고 혼잣말하시며 혼내지 않고 따뜻하게 봐주시던 엄마의 눈처럼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름 짓기 숙제는 수네만 해왔지만 꽃담 씨가 읽던 “시골에서 책읽기”와 내가 읽던 “여신을 찾아서”가 합쳐져 “산청에서 책 읽는 여신들” 이름도 생겼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걸까요. 조금씩 조금씩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씨앗들이 날아 들어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직장과 시간의 노예 노릇을 그만두고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농부가 됐지만

봄, 여름, 가을 할 일은 늘 줄을 이었고 숨 가쁘게 달리는 시간은 여전했습니다. 정신없이 밤을 줄다가 허리 펴면서 하늘 보면 기분이 환하게 밝아지듯 산책녀는 내게 숨 쉴 수 있는 공간,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 반의 밤 수학 전투가 끝나고 가을과 함께 시작한 문학과 함께 한 달 살기.

내가 사랑하는 박경리 작가를 함께 만나고 여고생 때 읽은 『김약국의 딸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새로 만난 통영의 봄날의 책방도 제주의 만춘서점도 늘 그리운 소심한 책방, 수상한 소금밭의 갈대들, 작은 연못에 비친 지미봉, 흐린 구름 내려앉은 아침 바다와 하늘을 산책녀 여신들과 함께했습니다. 모두 함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 속에 함께 반나절을 보낸 책약방.

가짜 까미노가 아닌 현실의 진짜 여행, 내 삶의 여정에서 동행이 되어 함께 걷는 친구들을 속 깊이 만나고 우정과 살림과 빵과 책을 나누는 가을 한 달. 이제 더 이상 먼 곳을 떠돌지 않고 이곳에 뿌리내려 놓고 또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혼자 걷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지구별 순례자였지만 이제 함께 걷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참 따뜻합니다.

※ 숨 가쁘게 달리는 시간 속에서 겨울잠에 빠진 듯 갑자기 무기력해질 때 뜻밖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 어느새 그 공간이 따뜻한 위로가 된다. 시간의 노예로 살면서 혼자 걷는다고 생각했을 때 문득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은 ‘문학’과의 소통, 교류다. 문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어정쩡한 중년들에게 다양한 길들을 보여줄 것이다. 더불어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슬며시 발 딛고 있는 자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가을비

김준용

길상사 갔던 날
내리던 비도
마곡사 갔던 날
내리던 비도
천동우레 소리와 함께 왔었다

늦가을 천동소리
여름날처럼 낮게 깔리니
더욱더
외로운 냇들이
산을 넘었는지
강을 건너갔는지

부음만 문자 타고 내게로 왔다

※ 어느 날부터 부음을 자주 받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부음 또한 문자로 전해지는 현실. 한 생을 마감한 누군가의 가는 길에 늦가을 가을비가 쓸쓸함과 적막함을 더해 처연하다. 이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옷깃이 스치지 않았어도 동시대에 같이 살았다는 것으로도 인연이었을 성싶다. 나는 타인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지 한번쯤 생각해봐도 좋을 듯하다.

내 삶의 쉼표 찍기

정용자

살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쉼표를 찍어줘야 할 시기가 온다. 앞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누군가가 선물처럼 쉼표를 찍으라고 던져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행운은 늦여름 더위 한 자락을 붙들고 내게로 왔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학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팀을 만들어 책을 읽고 작가를 선정하여 만나는 시간을 가진 후 그 마음을 담아 1박2일의 북스테이를 하며 서로 가깝게 알아가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이후 문학관을 둘러보고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글로 담아내는 4주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이라 팀 전체가 우왕좌왕 해매기도 했지만 특히 내게는 친정엄마의 입원으로 중도하차의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것을 포기하면 엄마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다행히 팀원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어 함께할 수 있었다. 추석에 쓰러진 엄마는 한 달여를 중환자실과 일반실을 오가며 생사의 갈림길을 지나들더니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가 끝나갈 즈음 일반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회복 중에 있다. 긴 호흡으로 보지 않고 포기했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첫째 주, 순화동천에서 만난 이원 작가와의 만남은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주었다. 이원 작가의 『야후! 의 강물에 천 개의 달이 뜬다』는 내가 추천한 시집이다. 시집 제목에 나오는 단어 두 개, ‘야후’와 ‘달’이 마음을 끌었다.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야후’는 처음 전자우편을 만들었던 곳이라 반가웠고 ‘달’은 매일 올려다볼 만큼 좋아한다. 이원 작가는 분위기 있는 외모와 내면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다. 글을 잘 쓰기 위한 팀이라면서 글쓰기에는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꾸준한 노력과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이 있을 때 개성 있는 글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주, 이원 작가와의 만남을 마치고 우리는 완벽한 북스테이를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알아보다가 최종적으로 파주 헤이리 마을의 모티프원을 확정했다. 아이들을 두고 처음으로 하는 1박2일의 북스테이 경험이라 미안함과 설렘의 감정이 떠나는 날까지 변덕을 부렸다. 자연 속에 집 한 채가 들어앉은 느낌. 모티프원을 본 순간 떠오른 생각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건물이 멋대로 자란 나무에 가려 위치를 바꾸면 잘 보이지 않았다. 신기했다. 헤이리 마을의 촌장이기도 한 모티프원 대표 이안수 씨가 기웃거리는 우리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했다. 흰 수염을 기르고 아주 편안한 웃차림을 한 이안수 씨는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는 외모처럼 편한 웃음으로 모티프원 구석구석을 안내해 주었다. 방마다 원목으로 만든 책상과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다. 잘 정돈된 침구와 책상, 창가에는 하얀색 천으로 만든 블라인드에 나무그림자가 드리워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도시에서 따라온 탁한 마음이 말갭게 걸리고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배낭을 내려놓고 한동안 서서 창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다 사진을 찍었다. 조금 전과 다른 생명을 잃은 낯선 풍경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산책을 하러 나온 헤이리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높았다. 푸른 하늘 군데군데 하얀 구름이 덧칠해져 있었다. 어린아이가 커다란 붓에 흰 물감을 찍어 마음 가는 대로 휘두른 것 같았다. 저녁에는 운 좋게 작은 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보이는 곳에 앉아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를 들으며 까맣게 일렁이는 커피를 훌쩍훌쩍 목구멍으로 넘겼다. 그 밤 모티프원 너른 방 하나를 차지한 우리는 일행 중 한 분이 가져온 기타 소리에 맞춰 아이처럼 노래를 불렀다. 악보 없이도 부를 수 있는, 참 오래되었지만 익숙한 노래들이었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 서~”

어둠은 창밖을 서성거리고 우리는 수십 년 세월 저편의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다. 노래를 하면서 우리는 십대였다가 이십대였다가 삼십대가 되었다.

사십이 되고 오십이 넘은 자리로 돌아올 즈음 노래가 끝났다. 긴 하루가 기척도 없이 자정을 넘어갔다. 낮선 곳에서의 하룻밤이 그렇게 지나갔다.

아침산책을 나섰다. 헤이리의 아침은 맑은 공기로 채워져 다소 서늘했다. 토지를 분양받아 오랜 시간 일했다는 헤이라공동체마을 곳곳에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풍경들이 있었다. 평화로운 길 소소한 풍경들에 발이 묶일 때마다 문득 이곳에 살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했다.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고 모티프원에서 직접 내려준 커피를 마셨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검은 액체에서 갓 붉은 원두향이 책이 있는 공간을 그득 채우기 시작했다. 크게 입을 벌리고 숨을 들이켜면 책 속의 글자가 따라 일어나 그대로 삼켜질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젊은 날은 어땠는지 지금은 어떤지 돌아가면서 말했는데 누구 한 사람 머뭇거리지 않았던 독특한 시간이었다. 지금 돌이켜 보니 안전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느라 눈을 맞추면서 커피를 꾸역꾸역 목으로 넘겼다. 적당히 씹싸름하고 시큼한 맛이 혀끝에서 느껴졌다. 시간이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쏠살같이 지나가고 해가 중천에 걸렸다. 젊은 날의 초상이 중년의 얼굴들 위에 겹쳐지고 있었다. 사진작가이기도 한 모티프원 이안수 총장은 우리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네모난 화면 안에 우리들의 시간이 멈췄다.

셋째 주, 최명희를 만나기 위해 전주행 열차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자 열차는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익숙한 풍경들이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다. 열차의 빠른 속도감은 제대로 삶의 실태를 찍고 있는 걸까 생각하게 만들었다. 채 두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주에 도착했다. 택시를 타고 한옥마을을 향해 가는 동안 거리에는 정제 모를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三三五五) 걸어 다니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한복이 외국관광객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 되었다.

최명희문학관에 도착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작가 최명희의

직접 쓴 원고를 보니 마음이 숙연해 졌다. 필체는 매우 간결했다. 문학관에 살아 숨 쉬는 최명희는 국어사전을 시집인 양 읽었다고 한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랑한 그녀 최명희. 최명희의 글 위에 화선지를 겹쳐 한 자 한 자 정성껏 써본다. 원고지에 그녀의 글을 필사하는 사람도 있었다. 문학관을 나와 전주 거리를 걸어본다. 오솔길을 닮은 작은 샛길을 따라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비밀의 정원 안으로 창 넓은 카페가 있었다. 우리는 누구랄 것 없이 창을 마주하고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하루 일정으로 최명희를 만나고 온 후 집에 있는 『혼불』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넷째 주, 어찌다 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다. 일정을 맞추는 틈틈이 기존에 하던 일들을 소화하고 엄마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도 들러야 했다. 비록 내가 원했던 온전한 쉼표를 찍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선물처럼 던져진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는 가끔 쉼표를 찍어도 된다는 확신을 주었다. 우려한 것과 달리 내가 쉼표를 찍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홀연히 큰 고통 없이 사라지길 바란다. 설 새 없이 달리다가 어느 날 남은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 병원에서 쉼표 없는 마침표를 찍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가끔은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생에도 쉼표가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 내 삶에 들어와 함께해준 동료들과 쉼표를 찍게 해준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며 글을 마친다.

※ 쉼표를 찍을 수 있다는 건 주체의 의지이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시간 그 길 위에서 언제 어디쯤에서 쉼표를 찍어야 하는지 아는 이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 쉼표를 찍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주체가 아직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 시기를 놓치다가 마침표를 찍게 되는 순간 이미 늦는다. 그 시기는 바로 지금 중년이다. 문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와 여행 속에서 인생을 재충전하게끔 하는 것이 중년의 힘이다.

4. 넷 || 책, 스미다

얼룩동사리의 부성애(父性愛)

오재덕

얼룩동사리는 우리나라 일부 하천에서 살고 있는 매우 부성애(父性愛)가 강한 민물고기다. 얼룩동사리는 수놈이 집을 지어 놓으면 암놈은 거기에다 산란(産卵)을 한다. 산란을 하고 나서는 지체 없이 떠나버린다. 어미라고 해서 모두 모성애가 강한 것만은 아닌 모양이다.

수놈은 떠나 버린 암놈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다. 오직 종족 보존에만 관심이 있어서 새끼가 부화될 때까지 지성으로 돌본다. 지느러미를 흔들며 산소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외적이 나타나면 용감하게 싸워 물리치기도 한다. 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덤벼드는 모습은 정말 아버지같이 믿음직스럽고 감동적이다.

수놈은 스무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알이 부화되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다가 그 술한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되어, 하나둘 알둥지를 떠나고 나면, 마침내 기진하여 숨을 거둔다. 텅 빈 알둥지 앞에서 눈을 껌벅이며 죽어가는 얼룩동사리의 모습을 화면에서 보다가, 그만 가슴이 뭉클해 왔다.

자식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다가 생을 마치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작고 고독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른다. 한 집안을 땀땀거리던 위엄은 사라지고, 그 아버지들이 요즘 바깥에서 배회하고 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들이 회사에서 무더기로 감원을 당한 것이다.

아버지들은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감히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걱정스러워하는 아내의 눈길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고,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릴 것 같은 아이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아니면 지하도 맨바닥에서 신문지 한 장 깔고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까지 달려온 숨 가쁜 세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였단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였다면, 그들은 아마 일찌감치 그 고된 삶의 짐을 내려놓았을 것이다.

한 여자를 만나 아이 낳고 기르면서,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 평범한 사람이 가는 정도(正道)라고 생각했다. 그 정도를 가기 위해 자신은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렸다. 하고 싶은 일도, 땀고 싶은 말도, 모두 버리고 참았다. 밥값을 내지 않으려고 제일 늦게 구두끈을 매는 종생원이 되었어도, 그런 비굴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상사(上司)의 모욕적인 말도 저녁때 한잔 술로 풀어내면 귀는 다시 깨끗해졌다. 내 가정만 지킬 수 있다면, 내 아이들만 잘 기를 수 있다면 아버지의 자존심 따위가 무슨 대수냐 싶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버지들이 의욕을 상실했다. 날로 야위어가는 것은 육체뿐만이 아니다. 육체를 지탱케 해주는 것은 의욕이요, 희망인데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드는 것은 무기력일 뿐이다.

무기력은 정신을 갉아먹는 좀 벌레와 같다. 이젠 더 이상 체면이라는 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무료배급소에서 밥을 타 먹는 두 손도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생존만이 절체절명의 과제일 뿐이다.

지금 서울의 아스팔트 위에서는 얼룩동사리들이 숨겨 가고 있다. 맨바닥에 누워 신문지로 얼굴을 가리고 잠들어 있는 그 모습에서, 나는 이 시대를 겪고 있다.

※ 온 생을 자식을 위해 살다가 떠나는 이 시대의 평범한 부모의 모습이 얼룩동사리와 닮았다. 자신의 삶이 없는 부모,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똑같은 부모가 될 터인데 악순환이다. 가정과 사회에 충실하며 살아온 중년의 삶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밀려난다. 그 속에 나도 있을 수 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기대며 함께 가는 세상은 정말 꿈인 것인가. 실존에 대한 사유가 필요한 때이다. 그 사유는 문학이나 글쓰기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정리될 것이다.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문동안

치유의 공간

일화용 종이접도 목말라 하는 사람을 위해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 밖에서 들어오시는 아버지는 그러셨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썰렁하니 빈집 같다 하셨다. 공간이란 그런 것 같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뭐든지 담고, 채우고, 오순도순 모여서 온기를 발산하는 곳 아닌가 싶다. 그래서 나는 한 번 해보자 문학살이를 치유의 공간이라 했다.

그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었고, 서로 간에 교류가 없었던 사람들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공감대 형성을 이루기 위한 공간을 잘 만들어갔다. 모두가 우리 리더인 임순영 선생 의 훌륭한 리더십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리더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리더인 임순영 친구도 고교 졸업 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연히 40년 만에 만났다. 올 봄 40년 만에 순영이를 처음 보는 순간 나는 미물이었음을 깨달았다. 순영이에 비하면 그간 내가 힘들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어림짐작해 순영이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0번 이상은 하지 않나 싶다. 순영이로 인해 나는 문학체험을 하게 되었고, 점점 내면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첫 만남은 1박2일간 진안 능길 마을에서 했다. 하느님이 나에게 당뇨병이 아닌 다른 병을 주었다면 아마 나는 40년 만에 순영이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구성원들 모두가 나에게는 치료제임을 느낀 1박 2일이였다. 그래서 나는 에브리데이 해피를 외쳤고, 나에게 대한 솔직 담백한 얘기를 하게 되었다.

두 번째 만남은 고영직 작가와 만남이였다. 고영직 작가는 60평생 내 삶을 의미 있는 여행으로 이끌어 주었다. 내면의 여행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하는 젊은 시절의 첫 번째 여행이 무엇인지, 다시 가슴에서 머리로 하는 중년 이후의 두 번째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중년으로서 남은 생에 대한 여행준비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세 번째 만남은 부안 석정 문학관에서였다. 낮에는 고추를 따고 호미로 밭을 맨다는 79세 아주머니의 백석 시인의 여우난골죽 시 낭송은 감동과 온전한 치유의 공간이었다.

시 낭송 무대에 서서 인사와 낭송에 대한 리듬을 고복순 교수님이 일일이 정성스럽게 지도해 주었다. 아! 지도에도 이렇게 품위가 있는 거구나, 그간 내가 한 강의나 현장지도는 가르침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작시인 마음을 낭독했다.

네 번째 만남은 채명룡 기자이면서 작가와의 만남이었다. 글 쓰는 방법을 개인별로 일일이 디자인해 주었다. 이날 채명룡 작가와 만남을 통해 나는 반성하는 의미의 가족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그래서 작가님이 물어봤을 때 제목은 야! 이놈아 정신 차려인 가족이야기라고 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은 비우기보다는 그저 채우려고만 했다. 내가 그간 채우려고 한 것은 욕심으로 변했고 욕심은 다시 자만과 교활함이 되었다. 짧은 한 달이었지만 나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고 욕심으로만 가득 찼던 내 마음에도 점점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기회를 준 임순영 리더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이 글은 한 달 동안 문학살이를 통해 삶을 되돌아보게 된 과정을 다섯 파트로 나눈 장에서 마지막 부분이다. 부제를 ‘치유의 공간’이라고 붙인 것이 의미심장하다. 문득 나에게 내 치유의 공간은 무엇일까 생각이 든다. 채움과 비움에 대해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은 역시 문학이다. 문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그동안 내 욕심이었던 것은 비우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될 것들은 채우게 하는 여유를 주는 것이 문학으로의 여행이다.

라일락 향기에서 국화꽃 향기로

김선옥

라일락 향기 그윽한 교정에서 친구와 난 운동주의 서시를 읽으며 우리들의 젊음을 우리들의 미래를 꿈꾸었다. 라일락 짙은 향처럼 나의 삶에 대해 고민하였고 소녀의 마음 담은 시들을 열심히 읽고 노래하고 써내려갔다. 그 이후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난 내 삶에 있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져본다. 고등학교 시절에 시란 나에게 꿈이고 행복이고 친구였다. 어느덧 50대에 들어선 나. 요즘 나의 가장 큰 화두는 이후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이다.

첫 번째는 교육하는 일을 하는 나는 청소년을 잘 섬기고 그들의 성장을 함께하는 이 일을 앞으로도 어떻게 잘해갈지 정리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이다.

학교 밖 친구들과 인생에 위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만나는 나는 이 친구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하고 어떤 수업을 통해서 변화 성장할지를 같이 고민하고 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 같이 읽고 쓰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일을 함께하면서 문학이 나와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과정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두 번째로는 50줄, 인생의 가을에 들어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다. 일상에서의 나, 존재에 대한 고민이랄까? 이런 것들이 요즘 더 많이 생각이 든다. 여유 있게 늙어가기, 아름답게 나이 먹어가기 등등. 이런 과정에서 문학이란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우연히 아니면 운명적으로 문학살이 한 달 모임에 초대가 되고 바쁘다는 이유로 조금 망설이기는 했으나 그래 용기를 내보자 하고 시간을 내었더니 나에게 축복 같은 시간이 되었다. 시를 다시 읽게 되었고 일상생활을 시로 적어보고 나의 삶에 대해 여유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도 되었다. 문학관 나들이는 일에 관한 책 외에 다른 글을 읽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가을 하늘과

가을 산의 정취를 듬뿍 누리는 값진 시간도 되었다.

걸으면서 느끼는 감성은 50대 이후의 삶을 충만히 버텨줄 맑은 공기로 다가왔고 함께한 사람들의 미소는 이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무엇보다 내가 사랑한 시인 신동엽을 만나고 참 기뻐다. 나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과 글로 꽉 채우겠노라 생각하게 되고 젊은 날의 정의감, 열정 그리고 뜨거움 등이 솟구쳐 오르고 아! 그때 그랬지 다시 행복하게 그래야지라는 결심도 해보게 된다.

국화꽃 만개한 가을, 은은한 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국화향이 아름답게 퍼지는 지금. 내 삶에도 새로운 향기를 만들어 볼란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나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다.

인생의 가을에 들어선 나의 삶에 화려한 단풍 같은 가을을 넘어 은은한 국화향으로 아름답게 채워줄 시간을 만들어간다. 국화향 가득한 글을 통해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간다.

※ 가을에 들어선 인생에게서 국화향이 난다. 늦가을쯤에 이른 내 인생에선 어떤 향이 날까. 이런 생각은 시를 읽고 쓰면서만 가능하다. 젊었을 때는 젊음 그 자체로 향기이기 때문에 젊음이란 향이 가득하다. 따라서 아름답게 나이 먹기, 여유 있게 늙어가기에 대한 고민은 중년에 들어선 인생에게서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생 2막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Ⅲ. 신중년 세대의 문학

1. 나만의 삶 || 외로움과 함께하기

나 역시 한병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동 없는 사색적 삶은 공허하고, 사색 없는 행동적 삶은 맹목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이 좀 더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의 시간을 내파하고 한가로움의 민주화를 위한 ‘혁명의 시간’에 대해 더 많이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간의 혁명에 대한 사유와 머무름의 기술은 시간이 남아돌아 주체할 수 없는 일부 ‘부유한’ 노년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신자유주의의 약속에 불과할 수 있다. 여전히 노동 사회에 포획된 채로 유포되는 ‘여가 사회’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활용되는 맥락이 철저히 근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소비자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레토릭에 불과할 수 있다.

노년의 새로운 양식을 위해서라도 한가로움의 민주화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반 일리치가 사용가치의 자율적 창조를 위한 저항으로서 공생의 정치를 역설한 것도 그런 이유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노년의 삶을 비롯해 우리 모두의 사용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저항으로서 이반 일리치가 제안한 공생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나를 위한 한가로움의 민주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반 일리치가 『성장을 멈춰라!: 자율적 공생을 위한 도구』(미토)라는 책에서 공생의 세 가지 도구로 자전거, 도서관, 시를 언급한 것은 하나의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으리라. 지금 당장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가서 시를 읽으시라.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 고영직, 『인문적 인간』(삶창, 2019). 261-262쪽

사회 변화와 함께 생활 방식이 다양해지고 세대가 달라지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자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이 세대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기성세대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며 돈보다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야근, 특근, 심야 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돌연사, 수면장애, 심근경색, 고혈압 등에 시달리면서도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신중년은 휴식은 물론 저녁이나 밤이 있는 삶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블루칼라나 화이트칼라 등 임금노동자들에게 건강권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셈이다. 더욱 산재보험은 꿈도 꾸지 못했다.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면 행복하리라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또는 회사를 위해 충성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가족 사이에서 불통이고 사회에서는 명퇴나 퇴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직 더 일해야 하는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자신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상품성이 없다는 판결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일로써 삶이 지탱되어온 신중년 세대의 이후 삶은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신중년은 사춘기보다 무섭다는 갱년기에 접어들며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부모와 자식 양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크다. 내외적 상황으로 불안과 우울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가는 신중년 세대. 거기에는 ‘나’가 없다.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의 상황만 있다. 외로울 새가 없는 것이다. 진정 혼자 있어본 적이 있을까. 혼밥, 혼술한다는 것과 혼자 무엇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이다. 어쩔 수 없이 처지나 상황에 내몰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있는 소통 없이 단절된 삶과는 다른 것이다. 나를 가꾸는 시간,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애전환이 필요한 시기에서 전전하고 있는 신중년은 잃어버린 고독의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한가로움의 민주화”를 위한 “혁명의 시간”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더 나아가 일과 삶의 통합을 이루자는 워라인이라는 의미의 신조어도 등장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 사이에 낀 신중년 세대는 저녁이 있는 삶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청년기를 거쳐 중년을 넘어서도 죽도록 일하고,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와 상황에 닥치더라도 또다시 차이면 안 된다. 남은 노년의 시간을 위해 저녁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여가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하며 고단하고 지친 자신의 삶을 위로할 시간을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태껏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굴러온 일상을 의심해야 한다. 익숙함과 상식이나 통념의 잣대로부터 벗어나서 나만의 삶을 가꾸기 위한 내 삶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혼자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기는 매한가지인데 문명의 편리함과 변하는 속도에서 하차하여 외로움에 대해 탐색해봐야 한다. 그건 “지금 당장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가서 시를 읽으시라.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문학이 이 외로움을 견디게 할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2. 나의 삶에 집중하기 || 왜 문학인가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문학의 ‘쓸모없음’에 경악한다. 할 일이 이토록 끝없이 쏟아지고 볼거리가 이토록 넘쳐나는 세상에서 문학을 읽어야 할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하루하루 닳치는 대로 살면 인생은 길을 잃는다. 재미를 좇아 모두가 멋대로 살면 사회는 붕괴한다. 인생엔 확실한 길이 없고 사회엔 정해진 모양이 없지만, 더 나은 삶이 있다고, 더 좋은 사회가 있다고 내기를 건 사람만이 나날의 허무와 싸울 수 있다. 나중에 환멸이 찾아올지라도 멀리 보는 새만이 아무도 닿지 못한 곳까지 날아간다. ‘위대한’ 이카루스 이야기가 남긴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꿈이다. 추락하는 이카루스의 등을 딛고 인간은 또다시 날아오르기를 꿈꾼다.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의미를 찾는 인간의 행동을 촉진한다.(…)

문학은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자기 소멸을 통해 소수자 언어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다수의 공통 감각(common sense)을 매만진다. 문학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자기 안에 더 많은 이질성을 공존시키고, 자신을 더 많은 것에 공감하는 존재로 다듬는다. 자신의 공통 감각을 타자에 열어 둔 채 끝없이 단련하는 개인들의 집합일 때, 자유와 민주의 공동체는 공화와 공존의 공동체로 성숙할 수 있다.

요컨대 문학은 시민을 만든다. 정보에 능숙한 전문가만 있고 문학을 읽는 시민이 없을 때, 사회는 사익 추구의 검투장이 된다. 볼테르·디드로·루소 등은 모두 문학에 뛰어 들었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공동체에 반드시 우애, 즉 공적 감정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을 읽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 수 있느냐에 따라 시민 사회의 성패는 갈린다. 이기의 존재인 인간을 이타의 존재로 바꾸는 힘이 문학에 있다. 문학이 없다면 시민도 없다. — 장은수 칼럼, 「문학 없으면 공감 능력 떨어져 시민사회 위기 온다」, 〈중앙일보〉,

2019. 12. 23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시를 읽고 쓰는 수업을 한다. 아니 함께 논다는 말이 맞겠다. 아이들은 아이들 목소리로 내는 짧은 글이 최고의 시임을 믿는 한 사람으로 그저 쉽게 쓸 수 있도록 또래의 시를 함께 읽는 것이 전부이다. 내가 하는 일이라곤 시를 쓰는 아이들에게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이다. 아이들에겐 상징이나 은유, 비유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수사법이 없어도 충분히 환하게 때론 아프게 때론 개구지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이들의 상상력은 예측할 수 없다.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시인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며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읽었던, 숙제로 써냈던 시와는 다른 시를 읽고 시를 저렇게 써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시를 바라보는 첫 마음인 것이다. 시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장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행복한 청소부』라는 그림책이 있다. 독일 거리의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 이야기이다. 청소부가 표지판을 닦는 거리는 작가와 음악가들의 거리이기도 하다. 바흐 거리, 베토벤 거리, 실러 거리, 브레히트 거리 등등. 어느 날 청소부는 그 거리들의 예술가들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음악회를 가고 책을 읽고 작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청소부가 청소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은 건 아니다. 청소부는 여전히 그 거리에서 작가들의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로 일을 한다. 다만, 사람들에게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다. 청소부가 하는 이 일은 돈이나 밥이 되지 않는다. 청소부의 이 일에 대해 더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화가가 되지 않더라도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보고 음악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음악을 듣고 악기를 연주하고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글을 읽고 쓰는 세상. 경제논리로만 돌아가는 세상에서 떨어져 아무짝에도 쓸모없을지 모를 것들이 마련해준 여유는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그러한 삶을 꿈꾸는지도 모른다. 작가가 되지는 않더라도 글을 읽고 쓰기도 하며, 생각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부와 권력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인 것이다. 정작 살면서 시간과 돈 버리며 헛짓한다는 행위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끔 수업이 끝나면 아이 엄마가 묻는다. “우리 아이가 시에 재능이 있나요?” 내가 “모든 아이는 시인이예요”라고 대답하면 엄마들은 시큰둥해한다.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잘 쓰기를 바라고 학교공부와 연관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만나는 첫날은 진이 빠질 정도다. 싫다는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와 앉혀 놓는데 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 시를 읽어준다. 그 또래들이 쓴 시를 쪽 읽어주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시끄럽고 관심 없던 아이들이 조용하게 듣고 있다. 아이들은 나름의 이야기로 시를 쓴다. 시를 쓰기 전에 시를 읽고 느낌 나누기를 하는데 정말 도서관이 떠나가도록 떠들며 “나, 할 말 많아요”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함께 읽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이야기를 써보는 것,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한다. 시를 쓰고 시를 읽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다.

아마 모든 예술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읽고 쓰고 보고 듣고 노래하고 이야기하면서 몸으로 느낀다는 것을 말이다. 비단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도 그림도 연극도 영화도 그러하리라 생각한다. 지금 어른이라는 우리는 얼마나 몸으로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만 드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어떤 특정한 잣대를 들이밀고 돈의 논리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온몸의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좋은 작가들에게 돈이 되지 않는다고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외면해버리고 아이들에게도 쓸데없는 것이라 무시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온몸으로 들어주는 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야 할 때이다. 노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 우리 세대는 더는 ‘누구를, 무엇을’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하기 쉬운 일이 읽고 쓰는 것이다.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초등 2학년 예인이가 쓴 시에서 잊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기억처럼 말이다.

외할아버지

초등 2, 박예인

우리 외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내가 책을 읽고 알았다.

아프리카 속담 하나가 있었다.

“잊혀지지 않은 것은 아직 죽은 게 아니다.”

라는 속담이다.

내가 외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다.

3. 옆집 사람 || 관계와 함께하는 문학

어차피 글을 쓰는 기술이랄지 방법이랄지 하는 것들은 펼칠 계제가 아니었던 고로, 자연스럽게 살아온 이야기보따리를 푸는 것으로 강의는 대체되었고, 당연히 나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녹음하고 받아쓰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일단 꿈무늬를 살짝 건드리니 실이 끝도 가도 없이 이어지는데, 예정했던 2~3시간이 훌쩍 넘어가버려서, 자를 수 없는 실타래를 잡고 우리 중 가장 원로였던 은발님의 쪽방으로 자리를 옮겨 라면을 끓여 먹어가며 얘기를 이어갔다.

허공에 쓰던 말로 된 글쓰기는 두 번째 만남에서 종이 위로 이사를 왔다. 첫 만남에서 집 책상 서랍에서 놀던 수첩을 열댓 권 가져가 맘에 드는 크기 색깔로 골라들 갔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 쪽방 시인 한 분이 시 몇 편을 그 수첩에 써온 것이었다. 가로세로 2.5미터짜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방과 딱딱따닥 붙어 있어서 옆집에서 부침개나 찌개를 하면 냄새 때문에 더 환장한다는 구수한 음식 이야기를 듣더니 지팡이님이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했다. 그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노트 위에 뭔가를 계속 끄적이는데, 은발님이 갑자기 시 낭송 하나 하겠다고 별떡 일어났다. 그가 결연히 눈을 감자 우리도 덩달아 눈을 감았다. (...)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차례로 “우리가 쓴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라던 글을 쓰고 말았다.

— 김해자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이상했다』 (아비요, 2013). 79~81쪽

사람은 관계 맺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사는 것이다. 혼자만 산다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 잘사는지 못사는지 알 도리가 없을 테지만 분명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중년 이후 고독의 시간을 되찾는 것이 일면 이웃과 관계 맺고 살아야 하는 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겠으나 그렇지 않다. 글은 혼자 쓰는

것이라 ‘고독’하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관계맺기 속에서 쓰는 것이다. 고독이란 어떤 몸과 마음이 방전된 무기력하고는 다르다. 지독한 고독은 자신의 밑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한다. “쪽방 시인 한 분이 시 몇 편을 그 수첩에 써온 것”처럼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외로움을 음미하며 자신의 삶을 탐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은발님이 갑자기 시 낭송 하나 하겠다고 벌떡 일어”나는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나누는 글쓰기가 되는 것이다. 관계가 옆집 사람 즉 이웃이다. 그렇게 형성된 이웃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알다시피 사람은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이다. 홀로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외로움이 필요한 혼자 산다는 의미 또한 스스로를 유폐시키거나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리’를 짓고 사는데 어떤 무리에 속하느냐이다. 어떤 무리이냐에 따라 그 무리의 지향과 기준, 무리의 문화, 무리의 관계망 등이 개인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한 관계는 무리의 이익에 따라 일시적이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 쓰면 뺄고 달면 삼킨다는 것이다. 그러한 무리에 속해 있는 개인들은 자신들의 인간성을 무리에게 빼앗기면서 무리를 키워준다. 그러고도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길에 선 신중년은 이제 수십 개의 가면을 벗고 본연의 나로 돌아올 때다.

어떤 이익을 기대하며 그들의 동질성을 지키고자 하는 패거리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개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수평적인 이웃으로서의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그게 옆집 사람이기도 하고 저 건넌집 사람이기도 하고 이웃마을 사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꽃과 나무와 작은 벌레와 동물일 수도 있다. ‘사색하는 사람’은 나와 무관하게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은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진실되게끔 살아가기 위해 고독의 시간에서 자신을 찾는 사람이다. 성숙해지며 더욱 단단하게 삶을 축적해가는 것이다. 공허한 가상세계나 먼지 같은 관계를 경제적인 압박 등의 불안에서 진정으로 자립하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자립은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다. 관계에 의존한다는 것은 무력한 내가 누구에게 기댄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만 자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only one으로서의 나, 옆집 사람으로서의 나로서 가능하다. 그러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법을 알게 하고, 펜과 종이만 있으면 일기나 편지나 시여도 좋을 몸과 마음을 기록할 수 있는 것처럼 굳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덜 가졌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빵과 서커스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자는 것이다.” “진정한 인생을 찾자는 것이다.” 그때의 글쓰기는 외로움과 불안을 견뎌내는 용기가 될 것이다. “주위가 소란할 때일수록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자. 높이 지르는 소리는 오히려 세상의 소요 속에 묻혀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4. 나를 위한 예술 || 단단한 삶

누구의 말마따나 “늙는다는 건 우주의 일”이다. 늙어가면서 죽음에 대해 더 자주 사유하고, 태도도 달라진다. 분명한 것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젊을 때보다 더 자주 체념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나는 젊지 않다. 생애의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영국 시인 딜런 토마스^{Dylan Thomas}의 “녹색 도화선을 통해 꽃을 몰아내는 힘이/나의 녹색 일생도 몰아내고, 나무뿌리를 폭파하는 힘이/또한 나의 파괴자.”라는 시를 떠올린다. 시간은 꽃을 피게 하고 시들게 하는 원인이다. 시간은 나를 창조하고 나를 파괴하는 힘이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유산소 호흡을 하는데, 이 유산소 호흡은 “악마와 맺은 계약”이다. 결국 우리가 죽는 것은 유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이다. “유산소 호흡이 없으면 아예 살 수가 없지만, 유산소 호흡을 하면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생명의 불에 열량을 태울 때마다 스스로를 화장^{火葬}하는 장작을 태우는 셈이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이며, 저마다의 시간은 소도가 다르지만 시간이 과거에서 와서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흘러간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우리는 늘 이미 한 일과 해야 할 일들 사이에서 허둥거린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주인이 부리는 노예일 뿐이다. 내 ‘바쁨’은 시간이라는 주인이 공익롭지 않은 악덕한 존재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결’ 서류함과 ‘기결’ 서류함 사이의 한 치 공간에 붙들린 작고 겁 많은 존재가 된다. 움직이는 현재와 자유로운 미래에 관해 고통의 환상을 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를 청소하느라 삶의 대부분을 보냈다. 맡은 일을 계속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기대에 부응하고, 미뤘던 일들을 흠쳐내느라 바쁘다.”**

늙음은 현대 첨단 의학도 손쓸 수 없는 불치병이다.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화와 죽음의 그림자에 겁먹지 말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자!

* 조너선 실버타운, 『늡는다는 건 우주의 일』 (노승영 옮김, 서해문집, 2016, 175쪽).

** 로버트 그루딘, 『당신의 시간을 위한 철학』 (오숙은 옮김, 경당, 2015, 66쪽).

— 장석주, 『베이비부머를 위한 변명』 (yeondoo, 2017). 129~132쪽

“늡는다는 건 우주의 일”이다. 얼마나 고독한 표현인지. “시간은 꽃을 피게 하고 시들게 하는 원인이다. 시간은 나를 창조하고 나를 파괴하는 힘이다.” 나를 창조하고 파괴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꽃이었는가, 중년으로서 두 번째 인생에선 ‘꽃’으로 저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외로운 작업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 자본주의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치열하게 자신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시간을 한 치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의 주축으로서 앞만 보고 달려온 신중년은 부모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세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주도권에서 밀려나 있다. 사회적으로 나이를 먹은 어른이지만 소통하는 방식에는 서툰고 관계 맺는 것도 어려워한다. 수직적이고 집단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에 더 익숙한 신중년 세대는 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은퇴를 했으나 일자리를 찾는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이다.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신중년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 방법을 항상 외부에서 찾는다. 사회경제적인 소외에 따른 헛헛함을 봉사활동이나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채우고자 한다. 삶의 행복이나 만족이 오롯이 내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기준을 삼고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문학이다. 문학은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생애전환점에서 나를 깊숙이 들여다보며 성찰을 통해 나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 힘을 키우는 양식이 바로 문학이다.

그렇다면 신중년의 언어와 문자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글에선 글쓴이의 인격이 묻어난다. 이전과 다르게 글을 쓰는 장은 훨씬 확장되었다. sns,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쓸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글쓰기는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인정의 욕구이다. 행간을 읽을 수 없고 여백을 느낄 시간이 없다. 시시때때로 다음 내용들을 올려야 외면받지 않기 때문이다. 글의 품격은 더더구나 찾아볼 수 없다. 이곳에도 신중년의 언어와 문자는 보이지 않는다.

글쓰기는 읽기와 단짝이다. 글쓰기를 하려면 읽어야 한다. 읽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글쓰기는 sns의 글과는 다른 것이다. 짧은 길든 무엇이든 쓰는 것을 글쓰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읽기와 같이하는 글쓰기의 의미는 아니다. 고미숙은 『고미숙의 글쓰기 특강』에서 “실제로 글을 쓴다는 건 인생과 세계를 마주하는 거예요. 좀 거창해 보이지만 참 평범한 말이에요. 산다는 건 결국 누군가를 만나고 이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글쓰기는 그걸 언어와 문자로 하는 것뿐입니다. 해서,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라고 한다. 읽기와 쓰기를 “구경하는 것과 창조하는 것 사이의 차이”라고 말하며 구경꾼은 영원히 구경만 하지만 창작자도 구경을 하기 때문에 창작자의 구경은 창조적이라는 것이다. “읽기 또한 쓰기의 과정”인 셈이다.

문학은 인간을 탐구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 너머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것 아닌가. 모든 생명에게 늙고 죽는 것은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인데 그 기회를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세대가 신중년이다. 두 번째 인생에서 성찰을 통해 성숙하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이며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경제적 불안에도 오롯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문학이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기회를 잡게 하는 발판이 돼줄 것이다. 신중년에게 새로운 가능성은 바로 지금-여기에서 열리는 것이다. 자기계발서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좋은 책을 읽고 그리고 쓰면

된다. 한 줌 용기만 내면 된다. “노화와 죽음의 그림자에 겁먹지 말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자!”

Ⅳ. 에필로그

보통의 삶에 질문을 던지는 일

— 김혜진, 『딸에 대하여』 (민음사, 2017)를 중심으로

그 말을 하는 동안 나는 젠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아니라 딸애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걸 세상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다.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나의 일이다. 이런 말이 내 안의 어딘가에 있었다는 게 놀랍다. 그런 말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침내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말이 되어 나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131쪽).

소설 속 나는 평범한 교사의 삶에서 지금은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다. 소설 속 화자 ‘나’가 돌보고 있는 ‘젠’은 오랫동안 사회 활동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치매 걸린 노인이 되어 누구의 방문도 오지 않는 그저 호기심 대상의 여성이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수입원의 대상이다. 나에게에는 월세가 나오는 집이 있고, 대학 시간강사인 딸이 있으며, 딸은 애인이 있다. 하지만 집은 거의 투자 가치가 사라진 연립주택이며 딸은 이제 대학과 싸우고 있는 백수이며 딸의 애인은 성별이 같다. 이 모든 자신의 삶이 비루하고 짜증난다. 외면하고 싶은 삶은 아이러니하게 ‘나’의 일상을 지배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들기 싫다. 젠을 의무적으로 보살피고 있는 시간부터 더 그렇다. 하지만 나는 젠의 삶에, 레인의 삶에, 그린의 삶의 시간에 끼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나는 질문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묻고 또 묻고 지칠 때까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딸애는 내 자식이니까, 끝내는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알아야만 한다. 적어도 나는 도망가는 부모이고 싶지 않다. 그런 식으로 화해하고

머뭇거리면서 딸을 잃고 싶지 않다(156쪽).

‘나’는 딸애가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교수가 될 줄 알았지만 지금은 길 위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자식 낳아 화목하게 살 줄 알았지만 딸애의 애인이 나의 집으로 함께 들어온 이후 그 바람도 무너진다. 딸애의 애인 ‘레인’은 성별을 빼놓고 ‘나’가 바라던 완벽한 배우자감이다. 그것이 더 분노를 일으킨다. ‘나’는 자신이 없어진 세상에서 딸애가 잘 살 수 있기를 바라지만,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다. 몇몇이 싸운다고 달라지는 세상이 아니니까. 내가 인정을 해도 사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사는 것이 비루하니까, 그저 보통의 삶을 살기 원한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자. 우리가 익히 아는 보통의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교사에서 도배노동자로, 통학버스 기사로, 보험판매원으로, 구내식당 노동자로, 요양보호사로 살고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체념으로 그녀의 직업은 사회 시선으로 볼 때 계속 아래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딸애를 둘러싼 청년들의 삶에는 그런 이유조차 허상이 된다. 자신의 생존을 걸거나 걸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의 삶을 선택하라고 강요당하고 있다. 작은 몸부림이라도 가차 없이 삶을 절단 당한다. ‘젠’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딸의 모습을 보고 있다. ‘젠’을 평화롭게 보내주는 것이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이유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사소한 싸움을 한다.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세상의 논리에 대해, 내부의 질서에 대해, 사회의 상식에 대해 말이다. ‘나’는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자꾸 다른 사람(딸, 딸의 애인, 젠)의 시간에 끼어드는 상황이 온다. 어떤 정의감이나 상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분이 된다. ‘남의 일’이라 여기면 내 맘이 편하다. 끼어들지 않아도 되고,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일이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삶은 없다는 것 아닐까.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균열이 생기는

공포가 되고 계속 질문을 해야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문학의 역할이지 않을까.

눈을 감고 잠을 청해 본다. 한숨 자고 나면, 아주 깊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이 모든 일이 다 거짓말처럼 되어 버리면 좋겠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순조롭고 수월한 일상, 그러나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끊임없이 싸우고 견뎌야 하는 일상일지도 모른다(197쪽).

작품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여성이다. 노인이 되고 병이 들고 연인의 성이 다르다는 건 여성만이 겪는 일이 아니다. 딸의 시간과 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나’의 이야기다. 지금 일부 사람들에게겐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대와의 차이, 직업의 차이, 성별의 차이 등 혼한 차이에 대한 이야기다.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 처절함을 외치기 위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와 다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일까. 누군가의 시간에 끼어들어 사소한 질문을 던지는(그러나 무거운) 움직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지금 이 순간 왜 문학이냐고 묻는다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기’가 아닐까. 문학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을 겪는 것이 문학이 아닐까. 소설을 읽는다고, 시를 읽는다고, 글을 쓴다고 어떤 쓸모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쓸모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문학작품 속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 돈이 없는 삶에 대해 아니 돈 버는 일 이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나를 중심으로 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배려, 공감, 나눔 이런 좋은 단어들은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미지를 위한 것이었다. 청년을 거쳐 중년의 삶 이후에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는 늘 낯설고 당황스럽다. 소설 속 ‘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보통의 삶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소설 속 ‘나’처럼 질문해야 한다.

부록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문학 프로그램 참고도서 목록 (총 92건)

연번	구분	분야	책 제목	저자
1	국내	시	해자네 점집	김해자
2	국내	시	하염없이 낮은 지붕	김용락
3	국내	시	활에 기대다	정우영
4	국내	시	어린 당나귀 곁에서	김사인
5	국내	시	싱고, 라고 불렀다	신미나
6	국내	시	지금 여기가 맨 앞	이문재
7	국내	시	사월 바다	도종환
8	국내	시	파일명 서정시	나희덕
9	국내	시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 인 나	최승호
10	국내	시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정현종
11	국내	시	얼떨결에	고종식
12	국내	시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고 한다	김사이
13	국내	시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신철규
14	국내	시	다음 생에 할 일들	안주철
15	국내	시	굽은 길들이 반짝이며 흘러 갔다	고두현 등 49 인 공동

16	국내	시	시가 뭐고?	칠곡 할머니 들
17	국내	시	어머이도 저렇게 울었을 것 이다	유용주
18	국내	시	나를 아끼는 가장 현명한 자 세	조영란
19	국내	시	곰곰	안현미
20	국내	시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르면 내가 돌아보았다	신용목
21	국내	소설	네가 이 별을 떠날 때	한창훈
22	국내	소설	단순한 진심	조해진
23	국내	소설	도돌이표 가족	최은영
24	국내	소설	노란집	박완서
25	국내	소설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26	국내	소설	딸에 대하여	김혜진
27	국내	소설	숲의 대화	정지아
28	국내	소설	모든 빗깎들의 밤	김인숙
29	국내	소설	두근두근 내인생	김애란
30	국내	소설	오합지졸 특공대	박혜지
31	국내	소설	우리들의 누이	홍정옥
32	국내	소설	안녕 주정뱅이	권여선
33	국내	소설	여름의 맛	하성란
34	국내	소설	사십사	백가흠

35	국내	소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별	노희경
36	국내	소설	은주의 영화	공선옥
37	국내	소설	유진과 유진	이금이
38	국내	소설	당신의 비밀	홍명진
39	국내	소설	아홉 살 인생	위기철
40	국내	소설	나의 아름다운 정원	심운경
41	국내	소설	개밥바라기 별	황석영
42	국내	소설	침대 없는 여자	서성란
43	국외	소설	에브리맨	필립 로스
44	국외	소설	한국에 혼 과짜 노인 그림프	투오마스 쿼 뢰
45	국외	소설	마사&겐	미우라 시온
46	국외	소설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 머니	카타리나 잉 엘 만순드베 리
47	국외	소설	자기 앞의 생	로맹가리(에 밀아자르)
48	국외	소설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배 크만
49	국외	소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포리스트 카 터
50	국외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헤세
51	국외	소설	파이 이야기	얀 마텔

52	국외	소설	메뚜기의 하루	네새네이널 웨스트
53	국내	인문	염치와 수치	김남일
54	국내	인문	인생극장	노명우
55	국내	인문	인문적 인간	고영직
56	국내	인문	나이듦 수업	고미숙 등
57	국내	인문	읽고 쓴다는 것, 그 거룩함 과 통쾌함에 대하여	고미숙
58	국내	인문	베이비부머를 위한 변명	장석주
59	국내	인문	나는 우울한 날에도 내 마음 을 지키기로 했다	강선영
60	국내	인문	내 마음을 만지다	이봉희
61	국내	인문	자존감 수업	윤홍균
62	국외	인문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 가	이반 일리지
63	국외	인문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
64	국외	인문	내가 누군지도 모른채 마흔 이 되었다	제임스 홀리 스
65	국외	인문	늡음, 열정과 상실 사이	플로리다 스 콧 맥스웰
66	국외	인문	인생학교: 나이 드는 법	엔카르프
67	국내	에세이	혼밥생활자의 책장	김다은
68	국내	에세이	할매의 탄생	최현숙

69	국내	에세이	하루	박노해
70	국내	에세이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정여울
71	국내	에세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 했다	하완
72	국내	에세이	오늘도 가난하고 쓸데없이 바빴지만	서영인
73	국내	에세이	가짜 자존감 원하는 사회	김태형
74	국내	에세이	가슴이 뛰는 한 나이는 없다	김옥
75	국내	에세이	늘변	김찬호
76	국내	에세이	지금에 내 인생의 골든타임	이덕주
77	국내	에세이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백영옥
78	국내	에세이	나는 죽을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근후
79	국내	에세이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
80	국내	에세이	혼자 책 읽는 시간	니나 상코비치
81	국내	에세이	외로운 존재는 자신을 즐긴다	문윤정
82	국내	에세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	장영희
83	국내	에세이	소설가는 늙지 않는다	현기영
84	국내	에세이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다	김해자

			이상했다	
85	국내	에세이	혼자만 잘 살든 무슨 재민겨 (고집쟁이 농사꾼의 세상사는 이야기)	전우익
86	국외	에세이	수리부엉이는 황혼에 날아 오른다	무라카미 하 루키
87	국외	에세이	자네 늘어봤나 나는 줄어봤 네	도야마 시케 히코
88	국외	에세이	사는게 뭐라고	사노요코
89	국외	에세이	어찌다보니 50살이네요	히로세 유코
90	국외	에세이	꽃이 없는 장미	루쉰
91	국외	에세이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소노 아야코
92	국외	에세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헬렌이어링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문학 프로그램 북스테이 목록 (총 18건)

연번	북스테이 명칭	세부주소
1	국자와 주걱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2	모티프원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38-26
3	산책하는 고래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340-20
4	블루마운틴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435
5	숲속 작은 책방	충북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미루길 90 미루마을 28호
6	문화공간 예술텃밭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노신로 274
7	책마을 해리	전북 고창군 해리면 월봉성산길 88
8	봄날의 책방	경남 통영시 봉수1길 6-1
9	가고파 그집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홍음쪽길 272-43
10	완벽한 날들	강원 속초시 수북로259번길 7
11	북카페 통659	경북 안동시 노하2길 19-5
12	사랑방서재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163번길 41-2
13	오사랑	제주시 한림읍 금능9길 1-1 밖거리
14	잇음	경남 통영시 충렬4길 33-5
15	생각의오름	제주시 구좌읍 송당2길 7-1
16	책방시점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101-16
17	일독일박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3길 11-1
18	지지향	경기도 파주시 화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문학 프로그램 문학관 목록 (총 71건)

연번	문학관(명)	세부주소
1	황순원 문학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341
2	김수영 문학관	서울 도봉구 해등로32길 80
3	김유정 문학관	강원 춘천시 신동면 실레길 25
4	노작 홍사용 문학관	경기 화성시 노작로 206
5	최명희 문학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
6	시문학과 문학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광생가길 14
7	경남 문학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11
8	정지용 문학관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56
9	목포 문학관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95
10	제주 문학의 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11	구상문학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191
12	김달진 문학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로 59번길 13
13	김삿갓 문학관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
14	남해 유배 문학관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
15	농민 문학 기념관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622-3 농민문학관
16	대구 문학관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49

17	대전 문학관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16
18	동리 목월 문학관	경북 경주시 불국로 406-3(진현동 550-1)
19	서울 문학의 집	서울 중구 퇴계로 26길 65
20	미당 시문학관	전북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2-8
21	박경리 문학공원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620-5
22	박인환 문학관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56번길 50
23	현대 時 100년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76(안서동 115번지)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창조관 13층
24	월하 이태극 문학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호음로 1014-16
25	이병주 문학관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231번지
26	이원수 문학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135번길 32
27	한국 근대문학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15번길 76
28	이주홍 문학관	부산 동래구 금강로 61번길 20-12(온천1동435-24)
29	삼성출판박물관	서울 종로구 비봉길2-2(구기동)
30	세계여성문학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내)
31	영인문학관	서울 종로구 평창 30길 81(평창동499-3)
32	한국 현대문학관	서울 중구 동호로 268(장충동 2가186-210)

33	한국 현대시박물관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42번지
34	한무숙 문학관	서울 종로구 혜화로9길20(명륜1가33-100)
35	동국대 만해마을	강원 인제군 북면 만해로91(용대리1830)
36	이효석 문학관	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길 73-25(창동리544-3)
37	토지 문화관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회촌길 79 (매지리570)
38	만해 기념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792번길24-7(산성 리 912-1)
39	잔아문학박물관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사랑제길9-9(문호리860-2)
40	조병화 문학관	경기 안성시 양성면 난실길 14-1 (난실리 337)
41	청류재 수목 문학관	경기 안성시 보개면 동문이길14-17(동신리 682-5)
42	한국 시문학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 ERICA캠퍼스 한국시문학관
43	마산문학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북8길 49-1
44	박재삼 문학관	경남 사천시 등대길103 (서금동101-67)
45	오영수 문학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현양길 280 -12
46	요산 문학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 60-6(납산동 662)
47	이육사 문학관	경북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525(원천리 900번지)

48	지리산 문학관	경남 함양군 휴천면 지리산가는 길 961 (월평리 201(구, 월평분교))
49	지촌 문학관	경북 안동시 임동면 지례예술촌 길 427(박곡리 1182-1)
50	지훈 문학관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실길55(주곡리 222)
51	청마 문학관	경남 통영시 망일1길82(정량동 863-1)
52	추리 문학관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 나길 111(중2동 1483-6)
53	평사리 문학관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6-23(평사리 497번지)
54	한국 시조 문학관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713번길 17
55	석정 문학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63(선은리560)
56	순천 문학관	전남 순천시 무진길 130
57	아리랑 문학관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용성1길 24번지
58	전북 문학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50
59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38 (원달리799, 산18-24)
60	채만식 문학관	전북 군산시 강변로 449(내흥동285)
61	천관 문학관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천관산문학길 160(연지리 산 109-22)
62	태백산맥 문학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89-19(회정리 357-2)
63	한국 가사 문학관	전남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877 (지곡리 319)
64	혼불 문학관	전북 남원시 사매면 노봉안길 52(서도리 522)
65	리터렌스 문학관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66	보훈 문학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20번길 278-22
67	오장환 문학관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 5길 12(중앙리140번지)
68	원서 문학관	충북 제천시 백운면 애련로855(애련리198)
69	충남 문학관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2길 111-3(운산리256-2)
70	충주 문학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207 (교현동)
71	홍성 문학관	충남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933-3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039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상암동, YTN뉴스퀘어) 11~12층

Tel. (02)6209-5900 / Fax. (02)6209-1392

E-mail. contact@arte.or.kr

www.arte.or.kr

